

특집 I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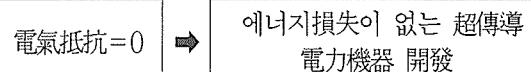
21世紀 새로운 成長索引 廉價 創出을 위한
超傳導 技術의 產業化
推進 方案

산업자원부
반도체전기과 박인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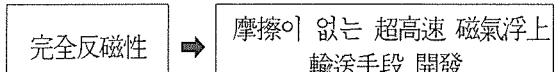
I. 超傳導(Superconductivity)의 概念 및 特性

- ◆ 絶對溫度 0K(-273°C) 근처에서 갑자기 電氣抵抗이 사라지는 현상
- 電氣抵抗에 의한 에너지손실 零의 世界를 가능케 함으로써 20세기 구리시대를 Break Through할 수 있는 新技術
- ◆ 에너지손실 零, 완전반자성, 조셉슨 효과 등 3代 極限特性이 기존의 效率개념을 Improve에서 Innovation으로 變化
- 에너지貯藏, 超傳導 磁氣浮上, 超高速 슈퍼컴퓨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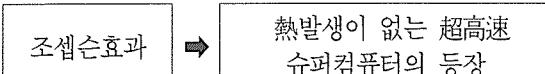
1. 超傳導 現象의 3大 特性



- 구리의 本質的 限界인 전기저항이 零이 되어 電力產業의 Break Through를 주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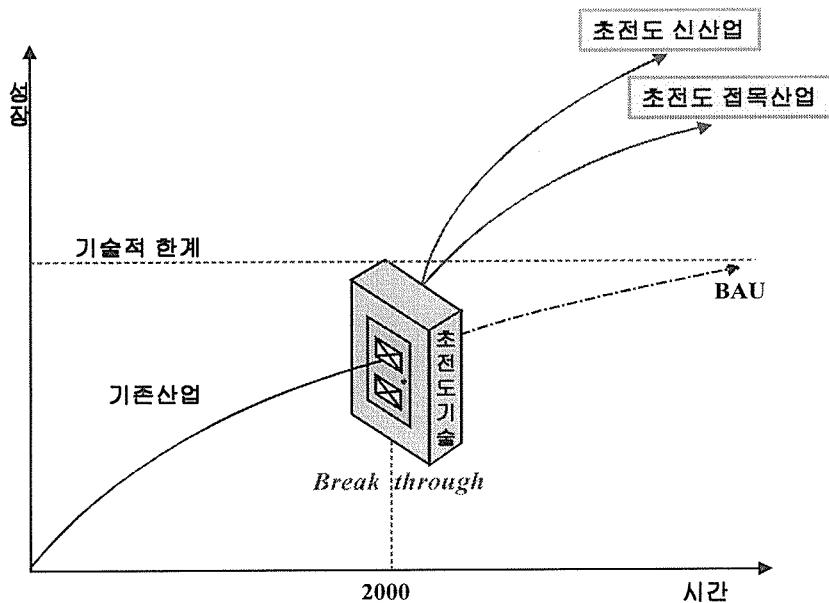


- 磁氣場을 완전배척하는 特性이 응용되어 輸送, 機械, 醫療, 環境등 核心產業의 Break Through을 주도



- 반도체보다 100배 이상의 연산속도를 갖는 초 전도 디지털소자가 반도체를 대체함으로서 情

2. 既存産業과 超傳導 技術의 相關관계



3. 超傳導 技術의 產業化 必要性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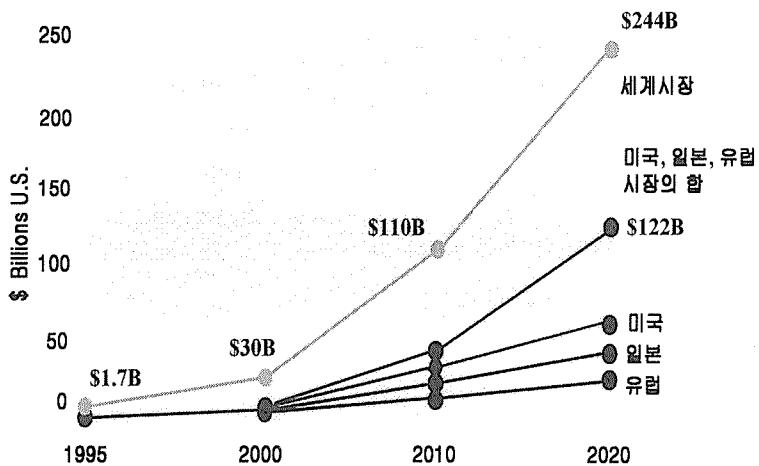
가. 21세기 經濟패러다임의 變化에 부응하는 새로 운 成長牽引産業의 발굴 必要性 대두

나. 環境, 效率, 速度의 3대 成長要素를 軸으로 하

는 거대 超傳導市場의 출현 임박

- 세계은행(World Bank)은 세계초전도 시장을 2000년부터 서서히 증가하여 2010년 이후에는 본격적인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
 - 미국, 일본, 유럽이 전체시장의 50%를 점유

구 分	19세기	20세기	21세기
성장 양식	자연의존	자연파괴	자연창조
성장 동인	자원 + 노동	자본 + 기술	지식 + 정보
성장제약요소	공간, 도구	자원, 유통	환경, 효율, 속도
성장견인산업	기계, 섬유방직	석유화학, 철강, 자동차, 반도체	초전도, 정보통신, 생물산업, 광산업



- 잉여시장을 개도국이 분할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

국제초전도 산업연맹(ISIS)은 세계초전도시장이 2010년까지 600~900억불, 2020년까지는 1,500~2,000억불에 달할 것으로 전망

- 현재 초전도시장을 주도하는 의료분야를 제치고 전력·전자등 응용산업의 비중이 급격히 신장될 것으로 전망

※ 국제초전도산업연맹(ISIS) : International Superconductivity Industrial Summit

〈 산업별 시장변화 추이 〉

(단위 : 억불)

구 분	2000	2010	2020	주 력 제 품
세계시장	80-120	600-900	1,500-2,000	
전력·전자	38%	48%	64%	전력응용기기, 전자통신기기
수송분야	9%	6%	9%	Maglev, 자기추진선
의료분야	30%	24%	11%	MRI, SQUID, NMR
기타분야	23%	22%	16%	자기분리장치 등

- 다. 氣候變化協約 및 에너지 危機에 대응하기 위한 Counter 산업의 育成

초전도 기술은 전기저항 零을 실현함으로써 기존의 아날로그식 효율개선을 뛰어넘는 효

율혁명을 견인

- 전력분야에 초전도기기 채택시 국내전력공급시스템의 효율을 3.72% 향상

	<u>2010</u>	<u>2020</u>
· 에너지절감량(만TOE)	320	410
· CO ₂ 감축(만t-C)	178	230

※ 2010년 절감량 : 포항제철 1/2개, 63빌딩 232개의 1년치 에너지사용량임

라. 정보통신, 생물산업등 신산업의 존립기반이 되는 혁신적 Back-up산업의 등장 필요성

□ 디지털 경제하에서 유통되는 막대한 양의 정보처리를 위한 정보통신산업의 초고속 대용량 저전력화 과제의 해결

구 분	20세기	21세기
요구속도(second)	$1\text{ns}(10^{-9})$	$10\text{ps}(10^{-12})$
요구전력(W/Gate)	1mW	$1\mu\text{W}$
요구주파수(Hz)	$100\text{MHz} \sim 1\text{GHz}$	$10\text{GHz} \sim 1\text{THz}$
해 결 방 안	반도체	초전도 디지털소자

□ 거대 정보통신 네트워크 경제사회구조의 유지를 위해서는 고도의 안정성 및 초정밀성을 요구하는 전력공급시스템의 구축이 필수
- 순시정전=경제활동 마비의 첨단산업사회를 지탱하기 위한 가장 실효성있는 대안으로 초전도 전력공급시스템이 부각

II. 世界超導技術의 產業化 現況

◆ 초전도기술의 산업화는 1987년 경제적 응용 가능성을 열어준 고온초전도체의 발견 이후 급속히 진행
- 이를 기점으로 미국, 일본, EU는 법령의 제정 및 상용화 프로그램등을 통해 본격적인 산업화를 추진

1. 전기저항 零을 실현하는 초전도 신소재산업

- 모든 초전도 응용산업의 모태가 되는 분야로 소재의 경제적 생산공법 및 사용온도, 전류밀도 등의 특성향상에 주력
 - 액체헬륨을 이용하는 저온초전도체는 이미 상용화되었으며
 - 응용범위가 넓고 값싼 액체질소를 사용할 수 있는 고온초전도체의 개발도 급속히 진행되어 상용화 단계에 진입
 - 미국, 일본, 유럽등에 이미 다수의 초전도회사가 설립되어 초전도 소재의 초기공급시장을 형성

구 분	미 국	일 본	유 럽	한 국
선제회사(개)	6	7	7	1

- 초전도 소재는 목적에 따라 선재, 벌크(bulk), 박막의 형태로 생산
 - 선재 : 전력, 수송, 환경, 의료등 가장 폭넓은 응용소재
 - 박막 : 초전도 디지털 소자 등 정보통신산업용 핵심소재
 - 벌크 : 자기베어링 등 기계산업용 소재

2. 제2의 전기혁명을 예고하는 초전도 전력기기 산업

- 대표적인 초전도 응용산업으로서 에너지효율 혁신 및 환경개선 차원에서 산업화가 가장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분야
 - 특히, 경제성 있는 고온초전도 선재의 개발이 가속화 됨에 따라 기존 전력기기의 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가장 유망한 분야로 부상

□ 초전도 전력응용기기 개발현황

- 기술적, 경제적 파급효과가 커 대부분이 국가 주도의 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산업화를 추진
 - 미국 : SPI(Superconductivity Partnership Initiative)
 - 일본 : New Sunshine Project
- 아직 시장형성단계는 아니나 시제품 제작 및 Field Testing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2005년 이후 본격적인 시장이 형성될 전망
 - 미국, 일본, EU를 중심으로 초전도 케이블, 발전기, 변압기, 모터, 한류기(SFCL), 에너지저장장치(SFES, SMES) 등을 개발
 - ※ 미국 Southwire회사는 기존케이블의 3~5배의 송전용량을 갖는 고온초전도 케이블을 1999년에 개발하여 실제로 설치운전중

3. 질병 조기진단의 최첨병 초전도 의료장비산업

□ 초전도 기술중 산업화가 가장 먼저 이루어진

분야로 초전도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입증

- 초전도 MRI는 1985년 영국의 Oxford사에 의해 상용화 되어 현재 전세계 MRI시장의 75%를 점유(년간 32억불의 시장)
 - 초전도 자기공명진단장치(MRI : Magnetic Resonance Imaging)
 - 핵자기공명장치(NMR : Nuclear Magnetic Resonance)
 - 초전도양자간섭소자(SQUID : Superconducting Quantum Interference Device)

4. 차세대 정보통신혁명을 주도할 초전도 정보통신 산업

□ 컴퓨터, 정보통신산업이 당면하고 있는 초고속, 대용량, 저전력화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망 분야로 부각

- 컴퓨터, 정보통신기기의 핵심부품인 반도체, 필터등이 초전도를 이용한 디지털 소자 또는 초전도 필터로 대체

반도체	초전도 디지털 소자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선폭 축소기술의 한계 · 발생 热의 제어문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초고속 : 반도체의 100배 · 저전력 : 반도체의 1/1000

※ 반도체 최대의 약점인 热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

□ 산업특성상 벤처기업의 탄생이 유망한 분야로 미국의 Conductus, HYPRES사등의 초전도 벤처기업과, 일본의 Hitachi, NEC등 많은 기업이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고 있음

□ 초전도 디지털 Device 개발현황

- 디지털 전자회로 및 초고속 정보통신기기등

광범위한 응용기기의 개발이 가속화

- 미국은 초전도 디지털소자를 이용한 슈퍼컴퓨터(peta FLOPS)개발을 위해 97년부터 HTMT project를 시작

※ HTMT : The Hybird Technology Multithreaded(97~2007)

- 위성간 통신 및 이동통신 기지국용 초전도 필터가 개발되어 Field Test를 완료하고 실용화 직전단계에 돌입
 - 일본은 현재 이동통신 기지국용 초광대역 초전도필터를 개발(주파수대 10GHz, 대역폭 200MHz)

5. 기타 초전도 산업

- 초전도 기술은 이밖에도 수송, 환경, 거대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 응용되어 실용화를 눈앞에 두고 있음
- 수송분야
 - 일본은 초전도 자기부상열차(Maglev)를 개발, 야마나시에서 시속 500km 시험주행 성공(도쿄 ↔ 오사카 건설예정)
- 환경분야
 - 초전도 자기박막분리장치, 녹조분리장치 등 환경기기에 응용되어 기존기기를 대체(미국 Dupont, 일본 Hitachi등)
- 거대과학
 - 물질의 근원을 밝히기 위해 입자를 가속하여 충돌시키는 초전도 입자가속기(SSC) 프로젝트(미국, 유럽)
 - 인공태양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국제 초전도핵융합로연구(ITER) 추진(미국, 일본, 유럽 등)
 - 국내에도 초전도핵융합연구로(KSTAR)사업이 과기부 주관으로 진행중

III. 先進國의 超傳導技術 產業化 推進戰略

1. 推進始點

- 미국, 일본, EU등 선진국은 고온초전도체가 발견된 87년을 기점으로 초전도분야를 집중 육성
 - 미국 : 초전도기술을 과학적발견이 시장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가에 대한 미국의 능력을 시험하는 척도로 인식
 - 일본 : 의회차원에서 중·참의원으로 초전도 산업의원연맹을 결성
 - EU : EU의 국제경쟁력 강화차원에서 84년부터 EU공동기금을 활용한 육성프로그램 수립

2. 推進體系

가. 政府

- 미국 : National Superconductivity & Competitiveness Act(88)제정 및 Superconductivity Program 수립
 - Superconductivity For Electric System Program에 따라 SPI 및 TI Program 등 을 진행
- 일본 : 『고온초전도개발 10개년 계획』 수립(88)
 - New Sunshine(통산성), Multi Core Project(과학기술청), Maglev Project(운수성)등 부처별 계획 수립
- EU : 『초전도 공동개발 Framework』를 결성(84)
 - BRITE/EURAM 및 SCENT 프로그램을 진행

나. 民間

- 미국 : 『미국 경쟁력강화를 위한 초전도협의회(CSAC)』 구성
 - 산학연 공동프로그램 참여 및 국제협력 활동

- ※ CSAC : Council on Superconductivity for American Competitiveness
- 일본 : 국제초전도산업기술연구센터(ISTEC) 설립(88)
 - 초전도 기술개발의 구심체로서 103개 기업이 공동참여
- ※ ISTEC : International Superconductivity Technology Center
- EU : 유럽초전도산업공동체(CONECTUS) 결성(93)
 - EU기업간 초전도기술협력 강화 및 산업화 촉진
- ※ CONECTUS : Consortium of European companies Determaine to Use Superconductivity

3. 推進戰略

- ◆ 정책의 안정성 및 지속성 확보를 위해 법 또는 전문조직 설치
- ◆ 대부분의 국가가 정부주도의 종합개발프로그램을 마련하고
 - 이를 토대로 정부 - 정부, 정부 - 민간의 명확한 역할을 정립, R&D 효율극대화 및 기술의 원활한 시장진입을 도모

- 미국의 CSAC, 일본의 ISTEC, EU의 CONECTUS 등 초전도전문조직이 설치되어 기술개발과 산업화의 중추적 역할 수행
- 정부의 종합계획하에 기업의 참여를 전제로 하는 산·학·연·관 공동개발시스템을 구축

- 미국 SPI프로그램은 핵심전략분야에 대해 5개 개발팀 운영
- 일본은 ISTEC내 4개의 SRL(지역연구소)에 103개 기업이 공동참여

V. 우리나라의 超傳導技術 開發現況

- ◆ 국내 초전도산업의 수준은 초기태동기로서 연구소 차원의 개발형태가 대부분임
 - MRI, 초전도선재, 초전도 디지탈소자 등 일부산업 태동
 - ◆ 초전도 기술의 산업화를 위한 기본 인프라의 절대적 부족 상태
 - 초전도에 대한 산·학·관의 총체적인 인식 부족에 기인

1. 國內 研究開發 現況

가. 推進體系

- 정부 부처별로 소형개별과제 위주의 산발적인 연구개발 수행
 - 과기부 : 초전도핵융합장치(G-7사업), 재료 및 전자소자
 - 산자부 : 초전도기반조성등(산기반조성사업 등)
 - 보건부 : MRI 개발(G7의료공학기술개발 사업)

나. 技術水準

- 선진국 보다 늦은 출발에도 불구하고 폭넓은 분야에 기초 및 응용기술을 확보(소수 초전도 연구인력의 강한 집념)

- 초전도재료 : 선진국 대비 80% 수준(핵심 가공기술확보)
- 에너지응용 : 선진국 대비 60~80% 수준 (시제품 개발)
- 전자통신 : 선진국 대비 60~80% 수준(기반핵심기술확보)

다. R&D 投資

- 정부나 기업 모두 초전도에 대해 Forever Future Technology란 인식이 강해 초보적 수준의 R&D 투자에서 벗어나지 못함
- 정부 : G-7사업인 초전도 핵융합장치연구사업 (KSTAR)외엔 소형단기파제 중심의 R&D투자

(단위 : 억원)

구 분	R&D 사업	'97	'98	'99
과 기 부	초전도 핵융합연구사업 등	197	232.4	218.1
산 자 부	초전도응용기술기반사업 등	17.8	11.8	19.5
보 건 부	MRI 개발사업	15.8	10.7	12.1
계		230.6	254.9	249.7

※ 초전도 R&D예산중 87%가 KSTAR사업에 집중

- 기업 : KSTAR참여기업, 초전도선재회사, 정보통신회사외엔 거의 전무한 실정
- 기업의 초전도 R&D 규모 : 81.2억원 (98) → 92.8억원(99)
- ※ 9개사 표본조사 결과로 현금부담분에 한정

- 등 38개
- 기 업 : 한전, 삼성, 한중, LG전선, 대성전선 등 19개
- 기업주도로 십년이상의 장기적 투자를 하고 있는 선진국과 비교시, 국내기업의 참여가 저조

2. 國內 超傳導 관리인프라 現況

가. 研究開發機關

- 연구소 : 전기연구소, 한전연구원, 한국과학기술원 등 10개
- 대 학 : 서울대, 연세대, 포항공대, 성균관대

나. 專門人力

- 국내 초전도 전문인력은 약 220여명 수준으로 전체 연구개발 인력중 기업에 20% 연구소가 27% 대학이 53%를 보유
- 이는 선진국 대비 1/20수준으로 절대연구 인력이 부족한 상황

〈국내 분야별 초전도 전문인력 현황〉

종 별	분 야 별			소 계
	소 채	에너지응용	전자통신응용	
기 업	8	24	13	45
연 구 소	17	35	8	60
대 학	38	52	27	117
총 계	63	111	48	222

※ 대학 : 교수급 인력

3. 產業化 水準

- 초전도 전력용용기기는 막대한 투자와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분야
 - 한전과 전기연구소를 중심으로 일부 시제품 개발단계이며 민간기업의 참여는 부진한 실정
- 초전도 선재분야는 MRI용 초전도 선재개발 등 실용화 단계에 진입
 - 대성전선 등 일부 전선회사의 참여로 실용화

제품 출시

- 초전도 전자통신 분야는 비교적 실용화가 용이한 분야
 - 일부 민간기업 참여하에 기반핵심기술을 확보했으며 초전도 디지털 소자 및 초전도 필터등에 대한 실용화 연구 진행중(LG, 삼성)
- 기타 초전도자기분상열차, 전자추진선박 등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연구개발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

VI. 超傳導技術 產業化 綜合對策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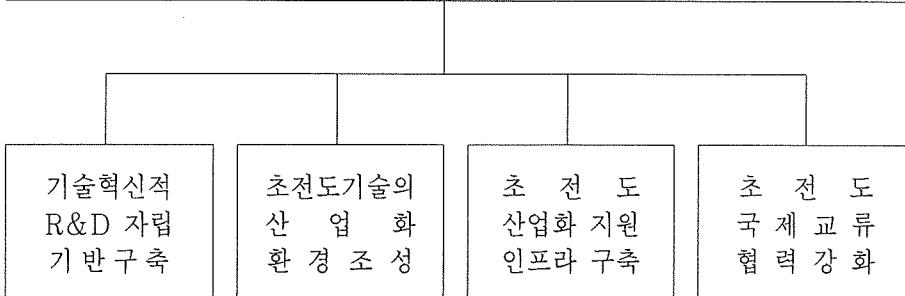
1. 發展目標

2010년 세계 5대 초전도 산업강국 진입

- 21세기 새로운 성장견인산업 도약
- 디지털경제 실현의 중추 산업화
- 에너지저소비형 경제사회 구조 구축



- ◆ 2002년 초전도 전력 · 정보통신기기 시제품 개발
- ◆ 2005년 반도체 · 환경 · 전력분야 초전도기기 부분 상용화
- ◆ 2010년 초전도 전력공급시스템 상용화





2. 細部 推進對策

가. 技術 革新的 R&D 自立基盤 構築

- 초전도 종합계획 K-Supercon 21 Project 수립(2000 - 2010)
○ 국가차원의 종합기술개발전략 수립을 통해

초전도 산업의 Industrial Road Map 및 Technical Road Map 등 장기비전 제시

- 시장 따라잡기(Catch up Market)에서 탈피, 시장선도(Leading Market)형 기술개발 전략을 수립
 - 4대 주력분야를 선정, 산·학·연·관 공동개발팀을 통한 체계적인 R&D수행

구 분	전력(제1팀)	전자(제2팀)	산업설비(제3팀)	소재(제4팀)
분 야	초전도 전력기기	초전도 전자device	초전도 산업기기	초전도 선재, 박막, 벌크

- Phase I (2000~2005) : STAR급 초전도기기 개발사업
 - 초기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단기산업화가 가능한 분야
- Phase II (2006~2010) : 중대형 초전도 복합기술개발
 - 전후방 산업 연관효과가 크고 장기기술개발이 필요한 분야
- K-Supercon 21 Project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2000년 산자부 산업정책연구과제로 선정, 용역수행(2000. 4)
 - 단계별 세부추진과제 및 전략은 용역결과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000년 6월까지 최종 결정
- 정부 부처간 유기적 역할분담체제 구축
 - K-Supercon 21 Project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범정부차원의 역할분담체제를 구축
 - 산자부 : 초전도 산업화 Infra 구축, 초전도 R&D 및 기술이전 총괄
 - 과기부 : 초전도 기초이론 및 거대과학 R&D, 부처 공동사업 참여
 - 정통부 : 초전도 전자통신기기의 표준채택 등 적용환경 조성
- 초전도 R&D 재원의 안정적 조달기반 확충
 - K-Supercon 21 Project의 R&D에 대한 부처간 공동 재원조달체계 마련
 - 초전도 R&D개발을 산자부, 과기부 공동사업으로 추진하여 2010년까지 총 2,500억 원을 투자
 - 차세대기술개발+전력기반기금+프린티어사업(과기부)
(500억원) (1,000억원) (1,000억원)
 - 21세기 프린티어사업 선정을 위해 과기부와 실무협의 추진(00. 6)
 - 전력산업기반조성기금내 초전도 R&D 예산 신설 추진(00. 9)
 - 4대 주력분야별 특성을 고려, R&D효율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R&D재원의 효율적 배분체제 구축

구 분	전력(제1팀)	전자(제2팀)	산업설비(제3팀)	소재(제4팀)
재 원	산자부 + 과기부 공동사업재원			
전력기반기금			전력기반기금	

초전도기술 산업화 기반조성 소요예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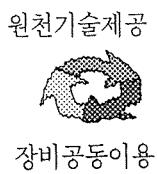
항 목	소요예산(억원)	재 원 조 달
□ 초전도 기술개발 기반 구축 - K-Supercon 21 Project - 시장반응형 기술개발 시스템(MITDS) 도입	2,700 2,500 200	차세대신기술개발사업 전력산업기반조성기금 21세기 프런티어사업 중소기업 창업지원자금
□ 초전도기술 산업화 환경 - 초전도기술산업화지원센터 (SINTEC) 설립 - 광역 초전도 벨트라인(Supercon Belt Line) 구축 - 초전도 종합전시관 (Super Elect- ricpia)건립	700 200 300 200	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
□ 초전도 산업화 지원인프라 - 초전도 표준화 · 신뢰성평가센터 (KOSSREC) 설립	100 100	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
총 계	3,500	

□ 시장반응형 기술개발 시스템(MITDS) 도입

- ◆ 초전도 등 산업적 기반이 취약한 미래기술의 경우, 기업이 직접 투자가를 물색하는 형태의 R&D자금 조달방식은 한계
 - 연구소(대학)가 직접 신기술에 대한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『시장반응형 기술개발시스템』을 도입
 - Lab-Venture → 초전도벤처기업 → 전문투자조합 → 초전도산업군
 - ※ 미국은 연구소등이 투자가를 대상으로 유망기술을 세일즈하여 R&D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 보편화

- 창투사,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등으로 200억원 규모의『초전도 Lab-Venture투자조합』결성 (2000. 9)
 - 산자부, 과기부등 정부출연 : 100억원
 - 창투사, 벤처캐피탈 등 민간출연 : 100억원
- 시장반응형 기술개발시스템(MITDS)의 작동을 위해 초전도 신기술투자박람회 개최(2000. 8)
 - ※ MITDS : Market Interacting Technology Development System
 - 연구소(대학)가 신기술 세일즈를 통해 시장이 기술을 선택·투자할 수 있는 장을 마련
 - 『Lab-Venture투자조합』은 신기술의 미래

초전도산업화
지원센터(SINTEC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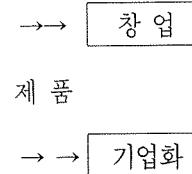
수익가치 및 성장성 등을 평가한후 연구소 및 대학에 투자를 결정

- 연구소(대학)는 개발완료후 벤처창업 또는 기술이전 등을 통해 사업화
- Lab-Venture를 통해 초전도벤처기업 창출 기반을 조성하고 향후 투자전문조합을 결성하여 본격적인 초전도산업군을 형성

나. 초전도 기술의 산업화 환경 조성

□ 초전도기술산업화지원센터(SINTEC) 설립 (2000. 9)

- R&D, 기술이전, 국제협력 등 K-Supercon 21 project 추진의 구심점이 될 전문기관 (SINTEC)을 설립(2000~2004)
- 산업기술기반사업으로 2004년까지 총200 억원 투입(00 : 4억원)
- 전기연구소(창원) 부지 활용(3000평)
- 초전도기업 연합컨소시움을 결성, SINTEC 설립에 공동참여
 - 한전, 현대중공업, 한국중공업, LG전선등 6 개업체 참여 확정
- SINTEC을 중심으로 Supercon Valley간 기술이전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기술개발과 산업화의 동시화를 촉진



- 광역 초전도 벨트라인(Supercon Belt Line) 구축
 - 초전도기술의 지역별 산업특화를 위해 전국을 3대권역으로 구분하여 2005년까지 3개 Supercon Valley를 조성
 - 초전도산업화지원센터(SINTEC)을 중심으로 각 Supercon Valley를 연결하는 광역 초전도 벨트라인(Supercon Belt Line)
 - 경인 Supercon Valley : 초전도 전자정보기기 산업군 형성
 - 대전 Supercon Valley : 초전도 전력용융기기 산업군 형성
 - 창원 Supercon Valley : 초전도 산업설비기기 산업군 형성
 - 산기반조성사업 및 지자체를 통해 2005년까지 300억원 지원
- 초전도 기술의 시장창출 기반 조성
 - 국가『장기전력수급계획』에 초전도 전력기기의 도입시기를 반영하여 기업참여 유도 및 시장에 대한 예측가능성 부여
 - 도심지역등 부하밀집지역내 송배전설비의 개체계획 반영 등
 - 초전도 지중케이블, 변압기, 한류기, 에너지저장장치 등
 - 에너지부문의 중장기계획과 초전도산업 육성 계획을 연계운영
 - 『기후변화협약종합대책』, 『국가에너지절약 종합대책』 등에 초전도 Solutions을 반영하여 초전도기기 수요 창출

- 초전도 종합전시관 SUPER ELECTRICPIA 건설(2002)
 - 대전 Supercon Valley내에 SUPER

ELECTRICPIA를 건설하여 초전도 전력공급시스템의 실계통 적용시험 및 전시장 활용(2002)

- SUPER ELECTRICPIA 건립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관련기관 협의추진(2000. 6월)

- 산·학·연·관이 참여하는『초전도 산업 CEO 협의회』구성
 - 기업, 연구소, 학계, 정부 대표로 협의체를 결성, 초전도 기술의 효과적인 산업화 방안 수립 협의(2000. 4)
 - 초전도 기술의 과급효과 및 향후 시장전망 등에 대한 분석 및 평가
 - 최고 경영층의 이해증진 및 정보 교류의 창구
 - 민간기금 조성 및 분야별 R&D 전략협의

다.

초전도 기술의 산업화 촉진을 위한
지원인프라 구축

- 지식기반형 미래기술의 확산 촉진을 위한 관련 제도의 정비
 - 21세기 돌파산업으로서 초전도기술의 산업화 정책을 지속적,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특별법의 제정을 추진(2000. 10)
 - 「초전도 기술 산업화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(가칭)」
 - 초전도기술 산업화 환경 조성을 위한 국가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시책 운용에 필요한 법률적 근거 마련
 - 초전도 등 지식기반형 신산업 전문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석사급 연구인력에 대한 병역특례제도 확대
 - 관련 연구소 및 기업등에 대한 병역특례요

원 할당 확대

- 초전도 표준화·신뢰성 평가센터(KOSSREC) 설립
(Korea Superconductivity Standard & Reliability Evaluation Center)
 - 『초전도 표준화·신뢰성 평가 센터』를 설립하여 초전도 제품의 표준제정 및 신뢰성평가 업무 수행
 - 신뢰성 평가장비 구입등 기반구축사업에 2002년까지 100억원 지원(2001-2002)
 - 초전도체의 특성평가법 표준화사업 추진
(2000 표준화기술개발사업 신규공고)
 - 초전도 기술/제품에 대한 기술분류체계 신설(2000. 4)
 - KOSSREC의 IEC 초전도 표준위원회(TC 90) 활동 강화
 - 초전도 관련기기의 국제표준 제정에 적극 대응
 - 미국, 일본, EU 등 국제표준 주도국과의 국제협력기반 구축

□ 초전도 고급인력양성을 위한 대학내 관련학과 신설 및 확대

- 초전도 관련 대학원을 신설 또는 확대하는 대학에 대해 R&D 우선 지원 및 산·학·연 Project 참여기회 등 인센티브 제공
 - BK21 및 지역기술혁신센터(TIC) 사업과 연계 추진
 - Supercon Valley 지역내 대학에 벤처창업 보육기관을 설치

□ 『논문 박사 제도』 도입 등 산업체 연구 인력의 전문성 우대 제도 강화

- 풍부한 경험 및 know-how를 지닌 산업체 인력의 능력을 국가가 공인해주는 『논문박사

제도』의 시범 도입

- 고등교육법에 논문박사제도 도입근거 마련
 - ※ 현재 일본에서는 개발실적 및 경력이 있는 우수 연구원에게 해당분야 논문 박학위를 수여(일본 주요7개대학의 논문박사 배출현황 : '98 34% 1,777명)
- 초전도기술산업화지원센터(SINTEC)에 『초전도 기술인력 양성과정』을 설치하여 산업체 기술인력에 대한 재교육 실시
- 초전도 기술의 저변확대를 위한 초전도 관련 이벤트 개최
 - 초전도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제1회 한·일 초전도 Joint - Symposium 개최(2000. 10)
 - 선진국의 초전도 기술개발정책 및 현황 파악을 위한 현지 조사단 구성 및 파견(2000. 5)
 - 미국, 일본의 초전도 산업동향 및 추진전략 Benchmarking
 - 『산자부장관배 초전도 기술 경진대회』 정기 개최(2000.8)
 - 대학의 초전도 열기 확산과 기술경쟁 유도

라.	선진국의 기술 block화에 대응한 초전도 기술 국제협력 강화
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□ 『한·중·일·러 국제 초전도 산업협력위원회』 설치

- 2000년 APEC 총회등을 활용하여 『한·중·일·러 국제 초전도 산업협력위원회』의 설치를 제안,
 - 국가간 공동프로젝트 수행, 초전도기기의 국제표준화 작업, 정보공유 네트워크 구축 등에 대한 역내국가간 실질적인 상호협력 증진

- 국제 초전도 산업연맹(ESIS) 가입 추진
- 국제초전도 산업동향 분석 및 선진국간의 기술장벽 구축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연맹 가입이 시급
 - ※ 동연맹은 미국, 일본, EU 3개국만으로 참여를 제한
 - 2000년 제9차 총회에 observer 자격으로 참가하기 위해 일본 ISTEC과 실무협의 진행(2000. 5)
- 국제 전기기술위원회(IEC) 초전도기술표준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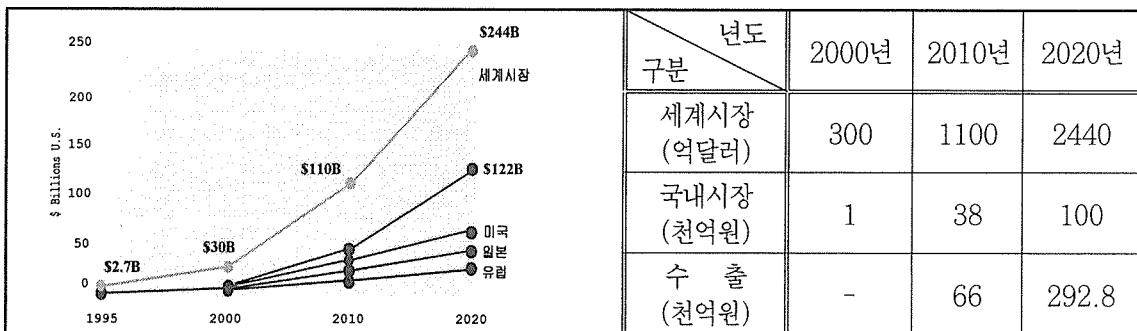
- (TC90) 세계총회 국내 유치 추진(2001)
- 총회의 국내 유치를 통해 초전도 분야의 국제표준 제정에 적극 참여
 - 초전도 표준화·신뢰성 평가센터(KOSSREC) 주관

□ IEA 고온 초전도 프로그램 활동 강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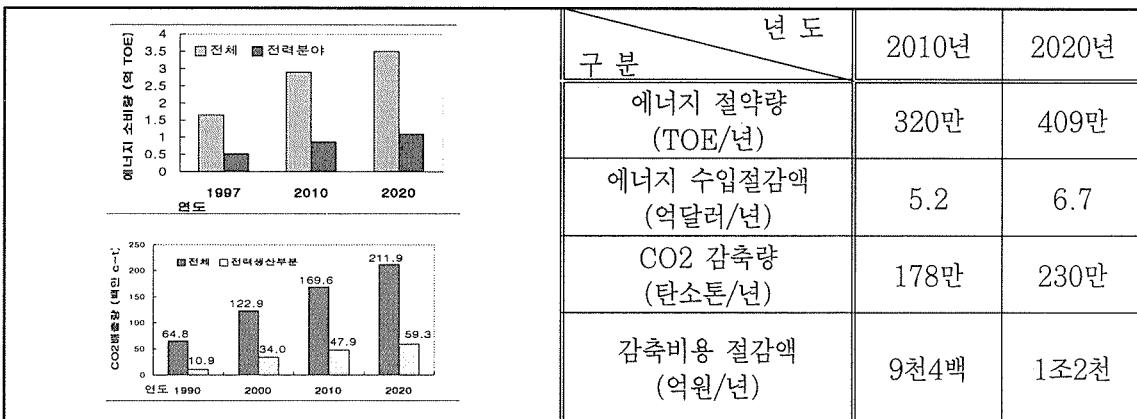
- OECD 회원국의 동향 파악 및 국가간 공동 연구개발사업 추진
- 활동주체를 민간에서 정부로 격상하여 정부 간 협의채널 구축

VI. 期待效果

1. 경제적 측면



2.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전 측면



3. 국가경쟁력 고도화측면에서

- 21세기 국가경쟁력의 원천인 차세대 정보통신산업의 육성 및 고품질의 환경친화형 국가전력 수급망 구축
- 지식기반사회의 도래에 따른 고부가가치 초대형 해외시장 진출의 전략적 기반구축
- 의료, 환경 등 인류의 보다 나은 삶의 실현과 관련된 산업의 혁신을 통한 인간중심의 Techno Society 구현

추진시책별 주관부서

추진전략	세부 추진시책	주관부서(협조부서)
기술혁신적 R&D자립기반 구축	○ 초전도 종합계획 K-Supercon 21 Project 수립	산자부
	○ 정부부처간 유기적 역할분담체계 구축	산자부(과기부, 정통부)
	○ 초전도 R&D 재원 조달기반 확충	산자부(과기부, 한전)
	○ 시장반응형 기술개발시스템(MITDS) 도입	산자부, 과기부
초전도기술의 산업화 환경조성	○ 초전도기술산업화지원센터(SINTEC) 설립	산자부(기업)
	○ 광역 초전도 벨트라인(Supercon Belt Line) 구축	산자부(기업)
	○ 초전도 시장창출 기반구축	산자부
	○ 초전도 종합전시관 SUPER ELECTRICPIA 건립	산자부, 한전
	○ 『초전도산업 CEO협의회』 구성	기업(산자부)
초전도 산업화 지원인프라 구축	○ 지식기반형 미래기술 확산을 위한 제도정비	산자부
	○ 초전도 표준화·신뢰성평가센터(KOSSREC) 설립	산자부
	○ 대학내 초전도 관련학과 신설 및 확대	교육부(산자부)
	○ 『논문박사제도』 도입등 전문성 우대제도	교육부(산자부, 국방부)
	○ 초전도 관련 국제세미나 및 이벤트 개최	산자부(과기부, 연구소)
초전도 국제협력 강화	○ 『한·중·일·러 국제초전도 산업협력위원회』 설치	외통부, 산자부
	○ 국제 초전도산업연맹(ISIS) 가입 추진	산자부
	○ IEC 세계총회 국내유치 추진	KOSSREC(산자부)
	○ IEA 고온초전도프로그램 활동 강화	산자부, 과기부

선진국의 초전도 산업화 추진전략

1. 미국

- ◆ 초전도산업을 과학적 발견이 시장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가에 대한 미국의 능력을 시험하는 수단으로 인식
 - National Superconductivity & Competitiveness Act(1988) 제정

가. 추진체계

- 초전도산업 종합발전계획인 Superconductivity Program에 따라 정부부처별 개발계획 수립
 - 에너지성(DOE), 상무성(DOC), 국무성(DOD), 과학재단(NSF)이 참여
- 민간차원의 초전도산업협의체 『미국경쟁력 강화를 위한 초전도협의회(CSAC)』 구성 → Program 참여 및 국제협력 증진
 - ※ CSAC : Council on Superconductivity for American Competitiveness
- 각 기관별 역할
 - 에너지성(DOE) : 초전도 R&D 프로그램 선도(전력기기중심)
 - 상무성 (DOC) : 초전도 재료 및 응용기기의 조기 상업화
 - 국방성 (DOD) : 위성간 전자통신응용소자 개발(DARPA 활용)
 - 전미과학재단(NSF) : 초전도 기초연구 및 R&D자금 조달
 - 국립 표준기술연구소(NIST) : 초전도 재료

연구 및 기기 표준화

- NASA(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) : 항공우주기술 프로그램, 우주기술 상업화 프로그램

나. 추진전략

- 산업의 특성 및 기술적,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, 정부-정부, 정부-민간 역할분담을 통해 산업화의 효율성을 제고
 - Superconductivity Program : 정부-정부
 - 정부부처간 소관분야에 대한 초전도육성 프로그램 수립
 - Superconductivity For Electric System Program : 정부 - 민간
 - 전력용용기기 : 정부주도의 산학연 프로그램 진행
 - 전자, 통신기기 : 민간주도의 개발프로그램 진행
- 전략적 육성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산업화 추진
 - DOE는 초전도 전력기기 개발을 위해 Superconductivity For Electric System Program 수립
 - SPI program : 전력기기 개발등 응용기술
 - TP program : 고온초전도 선재기술, 시스템기술
 - ※ SPI : Superconductivity Partnership Initiative(93)
 - TP : Technology Partnership(88)
 - SPI 및 TP에는 프로젝트별로 기업, 대학, 연구소로 산학연 공동개발팀(5개팀)을 구성
 - 연구소 및 대학의 개발기술이 기업으로 신속하게 이전
 - 정부와 민간이 50 : 50을 투자

〈SPI 프로그램 예산〉

구 분	88-95	96	97	98	99	00	05	10	15
투자비(백만불)	129.6	25	35	40	40	43	47	49	52

2. 일본

◆ 의회차원에서 발의되어 중·참의원으로 구성된 초전도산업의원연맹에서 전략적 개발정책을 수립하면서 본격화
- 『고온초전도 개발 10개년 계획』 수립
(87)

나. 추진전략

- 종합적·체계적·개방형 개발체제를 통한 초전도산업육성
 - ISTEC에 103개의 기업이 공동 참여함으로써 연구개발의 효율성 및 기술이전의 신속성 확보 → 산업화 촉진의 원천
- 선택과 집중을 통한 초전도 전력응용기기 독자기술 확보
 - New Sunshine 계획을 통해 초전도 전력, 에너지기기 개발

가. 추진체계

- 동계획에 의거 정부부처별 초전도기술개발 프로그램을 수립
 - 통상산업성 : New - Sunshine(초전도전력기기)
 - 과학기술청 : Multi - core Project(초전도 재료)
 - 운수성 : Maglev Project(초전도 자기부상열차)
 - 문부성 : 초전도 기술인력양성
 - 우정성 : 정보통신 Device
- 국제초전도산업기술연구센터(ISTEC) 설립을 통한 연구개발의 통합관리
 - 통산성 산하조직으로 88년에 설립되었으며 일본의 초전도와 관련한 모든 개발업무를 전담하는 종합연구센터
 - * ISTEC : International Superconductivity Technology Center

〈일본의 초전도산업육성 예산〉

구 분	96	97	98	99
투자비(억엔)	201	195	169	159

3. EU

◆ EU의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해 84년부터 EU공동기금에 의한 『공동연구개발 Framework』 프로그램을 추진

가. 추진체계

- EU 공동기금에 의한 『공동연구개발 Framework』
 - BRITE/EURAM 프로그램 : 초전도 재료 개발

- SCNET 프로그램 : 초전도 전력응용, 초전도 전자소자응용

□ 유럽초전도산업공동체(CONECTUS)

- EU기업간 초전도 기술협력 강화 및 초전도산업화 촉진을 위해 구성(93)

※ CONECTUS : Consortium of European companies Determaine to Use Superconductivity)

- 초전도체 내부의 모든 자기장을 배척하는 자기반발효과(Meissner Effect)

나. 이론정립기

□ 1957년 : BCS이론에 의해 저온초전도 현상의 과학적인 원인이 규명

- 미국의 과학자 Bardeen, Cooper, Schrieffer에 의해 공동규명

나. 추진전략

□ EU 공동프로그램과 각국의 독자 프로그램을 병행 추진

- 지리적 특성으로 초전도 전력응용기기 등의 개발은 EU공동 프로그램을 통해 주로 수행

- 현재 제5차(98~2002) 공동연구개발 Framework 진행중

- 각국별 비교우위가 있는 분야는 독자 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추진

□ 유럽각국의 초전도 개발예산('95)

저온초전도의 엄청난 냉각비용이 산업화의 결정적인 장애요인으로 작용

다. 가능성 확인기

□ 1986년 : 30K에서 초전도현상이 일어나는 고온초전도체 최초 발견

- IBM의 Bednorz 및 Muller에 의해 액체헬륨이 아닌 값싼액체 질소를 사용할 수 있는 란탄계 고온 초전도체 발견

□ 1987년 : 77K에서 초전도현상이 일어나는 고온초전도체 발견

- 미국계 대만 과학자 Paul Chu에 의해 산화물계 고온초전도체 발견

라. 응용기

가. 발견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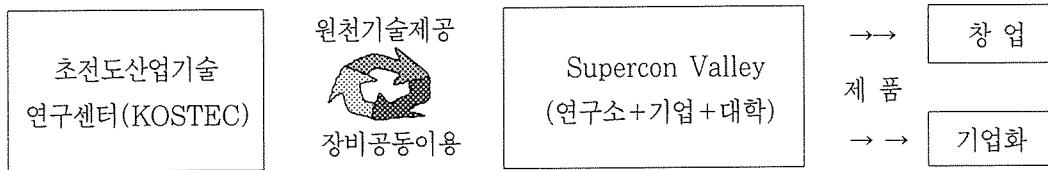
□ 1911년 : 네델란드의 물리학자 온네스(Onnes)에 의해 최초 발견

□ 1933년 : 독일의 Meissner 및 Oschenfeld에 의한 완전반자성 발견

□ 1990년대 : 130K급 초전도체등의 개발로 산업적 응용이 본격화

- MRI, NMR의 상품화, 전력응용기기 개발, 무선통신, 자기부상열차
- SINTEC을 중심으로 Supercon Valley간

정보공유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기술개발과 산업화의 동시화 촉진



- 4대 주력분야별로 별도의 R&D 재원조달계획을 수립

- 전력분야 : 차세대신기술개발사업, 전력산업기반조성기금
- 전자분야 :

- K-Supercon 21 Project Phase I 의

『STAR급 초전도 기기개발 시범사업』 소요 예산 조기 확보

- 산업분야별로 파급효과가 큰 초전도 기기를 선정, 2005년까지 1000억원 투자
- 4대 주력산업별 특성에 맞는 R&D 재원 배분

구 분	전력(제1팀)	전자(제2팀)	산업설비(제3팀)	소재(제4팀)
재 원	산기반사업 + 전력기반기금	차세대 + 21 프런티어	산기반사업 + 전력기반기금	차세대 + 21 프런티어

